

보도시점 2026. 10. 27.(화) 11:00
2026. 10. 28.(수) 조간

배포 2026. 10. 27.(화) 06:00

농림축산검역본부-KOICA, 아시아 개도국에 한국의 식물검역 기술 알린다

- 아시아 10개국 식물검역담당자 20명 대상 곡물에 피해를 주는 해충의 분류동정 강의와 실습 실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직무대리 정승교, 이하 ‘검역본부’)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12일간 아시아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 10개국*의 식물검역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선진 검역시스템과 식물검역 기술을 전수하는 초청 연수사업을 실시했다.

* 네팔, 라오스, 말레이시아, 베트남, 부탄,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검역본부는 2006년부터 연수사업을 시작해 식물병해충 분류동정* 기법 등 다양한 주제를 매년 선정하여 강의 및 실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병해충 예찰 국제 워크숍과 같은 특별 프로그램도 병행해 폭넓은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 동정(同定): 병해충의 형태나 유전적 특징 등을 비교·분석해 정확한 종을 찾아내는 과정

** 2024년까지 개도국 식물검역전문가 361명 연수 과정 수료(2025년 미 실시)

식물병해충의 정확한 분류동정은 검역 대상 병해충을 판별하고 적절한 검역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과학적 기초이다. 그러나 아시아 일부 개도국은 분류동정을 위한 전문 인력과 기술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에 검역본부는 우리나라의 식물검역 제도와 병해충 분류동정 기술을 공유하여 참가국의 식물검역 역량을 높이는 한편, 참가국이 각국의 식물검역 정책과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딱정벌레목(Coleoptera) 분류동정’을 주제로 선정하여 관련 이론 강의와 그룹 실습을 진행했다. 딱정벌레목에는 세계 각국이 우려하는 검역 병해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아시아 개도국이 특히 우려하는 곡식 수시령이 등 저장곡물해충*이 포함되어 있어, 참가 연수생들의 관심이 매우 높았다. 연수생들은 실습을 통해 전문적인 병해충 분류동정 기술을 배울 수 있어 유익했고, 다른 참가국의 식물검역전문가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뜻깊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 저장곡물해충: 수확 후 저장 중인 쌀, 밀 등의 곡물에 양적·질적 손실을 일으키는 해충

박선우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국가 간 농산물 교역이 확대될수록 식물검역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라고 하며, “이번 연수사업을 통해 개도국의 식물검역 역량이 강화되고 참가국 간 협력이 지속되어 농산물 교역의 안전성 확보가 공고히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개도국 식물검역전문가 초청 연수사업 사진

담당 부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	책임자	과 장	박경희 (054-912-0621)
		담당자	사무관	예미지 (054-912-0627)





이론 강의



실습 사진1



실습 사진2



단체 사진